

마약류 심각성에 관한 국민 인식도 조사 보고서

2008. 10.



목 차

I. 조사 개요	1
① 조사 목적	2
② 조사 설계	2
③ 조사 내용	3
④ 응답자 특성	4
II. 조사 결과 요약	5
III. 조사 결과 분석	20
①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인식	21
1.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정도	21
2.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개인적 인식 정도	23
3.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피해 인지경로	25
② 마약류 및 남용약물 사용경험	26
1. 마약류에 대한 사용 경험	26
2. 조기유학생들의 마약류 문제 대처방안	28
3. 마약류 중독 회복자에 대한 인식	30
③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활동 인식	32
1.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활동 접촉도	32
2. 향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사업 방향	33
④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 방지 방안	35
1. 마약류 및 약물남용 방지를 위한 정책 방안	35
2.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한 민간단체 활동 지원 필요성	37
3.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한 민간단체 활동 참여 의향	42

첨부 1. 기초통계표

첨부 2. 조사설문지



Contents

I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2 조사 설계

3 조사 내용

4 응답자 특성



1. 조사 목적

조사목적

- 본 조사는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인식 및 경험 그리고 향후 마약류 및 약물남용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방안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추진됨.

2. 조사 설계

세부 조사 설계	
① 조사대상	● 전국(제주 제외)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② 조사방법	● 전화면접조사 (Telephone Survey)
③ 표본추출	● 전국 만19세이상 인구의 지역, 성, 연령별 구성비에 근거한 비례할당추출 (Proportional Quota Sampling)
④ 응답자 선정	● 인명부 전화번호 DB를 이용한 체계적 추출
⑤ 유효표본	● 총 1,000명 ● 95% 신뢰수준하에서 최대 표집오차 $\pm 3.1\%p$
⑥ 조사시점	● 2008년 10월 19일 - 10월 21일
⑦ 조사기관	● (주)월드리서치

3. 조사 내용

평가 항목	'06년	'07년	'08년
○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정도	○	○	○
○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개인적 인식정도	○	○	○
○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피해 인지경로	○	○	○
○ 마약류 사용 경험	○	○	○
○ 조기유학생들의 마약류 문제 대처방안	○	○	○
○ 마약류 중독 회복자에 대한 인식	○	○	○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활동 접촉도	○	○	○
○ 향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사업 방향	○	○	○
○ 마약류 및 약물남용 방지를 위한 정책 방안	○	○	○
○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한 민간단체 활동 지원 필요성	○	○	○
○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한 민간단체 활동 참여의향		○	○

4. 응답자 특성

		사례수(명)	비율(%)
전체		1,000	100.0
성	남자	491	49.1
	여자	509	50.9
연령	20대	244	24.4
	30대	258	25.8
	40대	211	21.1
	50대이상	287	28.7
지역	서울	221	22.1
	부산/경남	167	16.7
	대구/경북	116	11.6
	인천/경기	241	24.1
	광주/전라	118	11.8
	대전/충청	103	10.3
	강원	34	3.4
도식규모	대도시	489	48.9
	중소도시	396	39.6
	군지역	115	11.5
학력	중졸이하	140	14.0
	고졸	331	33.1
	대재이상	529	52.9
직업	화이트칼라	236	23.6
	블루칼라	119	11.9
	자영업	127	12.7
	주부	299	29.9
	학생	129	12.9
	무직/기타	90	9.0
소득	100만원이하	92	9.2
	101-200만원	141	14.1
	201-300만원	223	22.3
	301-400만원	183	18.3
	401만원이상	249	24.9
	무응답	112	11.2
장기해외체류경험	있음	80	8.0
	없음	917	91.7
	무응답	3	0.3



Contents

Ⅱ 조사 결과 요약

1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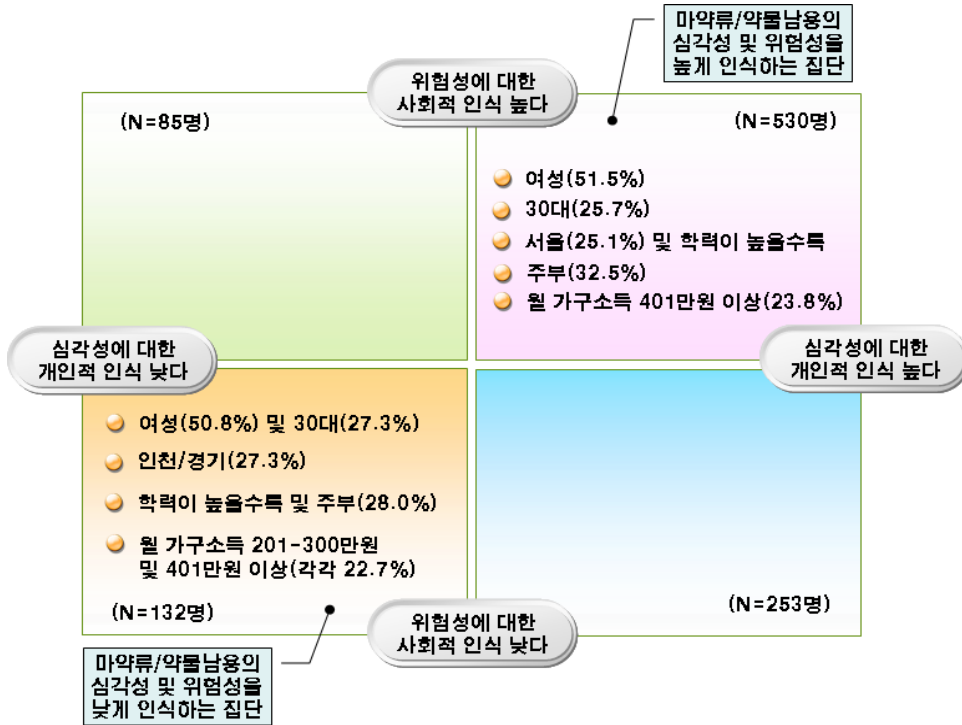
1.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심각성 및 위험성에 대한 인식

-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에 대해 일반국민의 61.5%는 ‘사회구성원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한 반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38.5%인 것으로 조사됨.
- 특히 지난 2007년도 결과와 비교해보면,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증가(▲0.6%p) 하였음.
 - 2007년 60.9% → 2008년 61.5%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2006년(%)	2007년(%)	2008년(%)	Gap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13.7	18.5	15.8	▶ 57.9
대체로 인식하고 있는 편이다	44.2	42.4	45.7	
별로 인식하지 못하는 편이다	37.2	35.0	35.4	▶ 40.9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3.7	0.7	3.1	
무응답	1.2	3.4		▶ 38.5
				▲0.6
				▲2.8

- 우리나라 국민들의 10명 중 8명 정도(78.3%)는 개인적으로 마약류 및 약물남용이 ‘심각하다’는 견해를 제시한 반면,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은 21.7%로 나타남.
- 지난 2007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는 의견은 비슷한 수준(▽0.1%p)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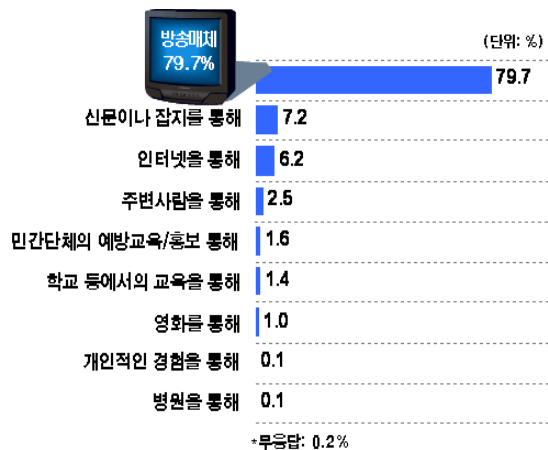
심각성에 대한 개인적 인식	2006년(%)	2007년(%)	2008년(%)	Gap
매우 심각하다	26.1	25.3	24.0	▶ 77.5
다소 심각하다	51.4	53.1	54.3	
별로 심각하지 않다	20.1	19.5	20.7	▶ 21.7
전혀 심각하지 않다	1.6	1.1	1.0	
무응답	0.8	1.0		▶ 21.7
				▽0.1
				▲1.1



-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높게 인식하는 집단**’(N=530)은 여성(51.5%), 30대(25.7%), 서울(25.1%), 학력이 높을수록, 주부(32.5%), 월 가구소득 401만원 이상(23.8%) 소득층으로 분석됨.
- 반면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낮게 인식하는 집단**’(N=132)은 여성(50.8%), 30대(27.3%), 인천/경기(27.3%), 학력이 높을수록, 주부(28.0%), 월 가구소득 201-300만원 및 401만원 이상(각각 22.7%) 소득층으로 나타남.

2.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피해 인지경로

- 일반국민 대다수(79.7%)는 ‘방송매체’를 통해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피해나 위험성을 알게 되는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여성(84.3%)이나 연령이 높을수록, 부산/경남(87.4%) 거주자에서 ‘방송매체’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2 마약류 및 남용약물 사용경험

1. 마약류에 대한 사용 경험

- 마약류 및 남용약물의 실생활 사용경험을 살펴보면, ‘피로회복제’(12.2%)가 1순위로 응답됨. 그 다음으로 ‘살 빼는 약’(10.7%), ‘술 깨는 약’(9.4%), ‘머리가 맑아지는 약/근육을 키워주는 약’(7.6%) 순으로 나타남.
- 지난 2007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 때, 마약류 및 남용약물 사용 경험은 다소 감소한 수준으로 조사됨.
 - 살 빼는 약: $\nabla 4.9\text{p}$ (’07년 15.6% → ’08년 10.7%)
 - 머리 맑아지는 약/근육 키우는 약: $\nabla 4.6\text{p}$ (’07년 12.2% → ’08년 7.6%)

마약류 및 남용약물 사용경험률(%)	2006년	2007년	2008년	Gap
가. ‘피로 회복제’	12.8	13.4	12.2	$\nabla 1.2$
나. ‘살 빼는 약’	15.1	15.6	10.7	$\nabla 4.9$
다. 술집 등 유흥업소에서 유통되는 ‘술 깨는 약’	9.6	10.7	9.4	$\nabla 1.3$
라. ‘머리가 맑아지는 약 혹은 근육을 키워는 약’	11.3	12.2	7.6	$\nabla 4.6$

- 2008년 ‘피로회복제’ 사용경험은 여성(12.8%), 30대(17.4%), 광주/전라(16.1%), 고졸(13.9%), 주부(15.1%), 월 가구소득 301-400만원(16.9%)에서 높게 나타남.
- ‘살 빼는 약’ 사용경험은 여성(13.6%), 40대(13.3%) 및 30대(13.2%), 서울(16.3%), 고졸(12.4%), 주부(15.7%), 월 가구소득 401만원 이상(12.9%)에서 사용경험이 높게 나타남.
- ‘술 깨는 약’ 사용경험은 남성(11.8%), 10대(10.2%) 및 40대(10.0%), 서울(15.8%), 대재이상(10.0%), 학생(13.2%)에서 높게 나타남.
- ‘머리 맑아지는 약 및 근육 키우는 약’ 사용경험은 남성(9.4%), 연령이 낮을수록, 서울(12.7%), 학력이 높을수록, 학생(14.7%), 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용경험이 높았음.

- 연령대별 마약류 및 남용약물의 사용경험률을 시계열적으로 비교해 보면, 모든 약물에 대해 경험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피로 회복제’ 사용경험에서 50대(▲4.9%p) 및 30대(▲3.4%p), ‘술 깨는 약’ 사용경험에서 50대(▲1.1%p)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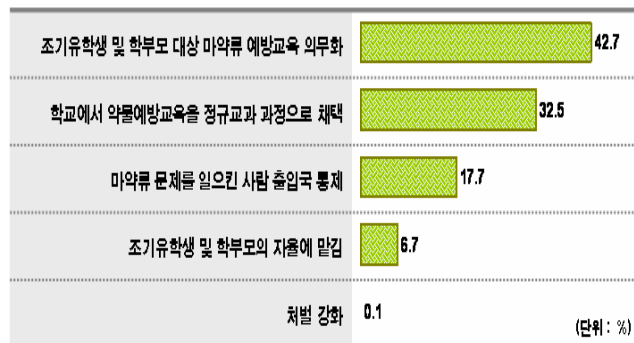
연령	피로 회복제 사용경험(%)				살 빼는 약 사용경험(%)			
	2006년	2007년	2008년	Gap	2006년	2007년	2008년	Gap
20대	9.0	17.2	5.3	▽11.9	10.7	19.1	7.0	▽12.1
30대	15.1	14.0	17.4	▲3.4	18.6	13.6	13.2	▽0.4
40대	15.6	15.4	11.4	▽4.0	16.6	18.0	13.3	▽4.7
50대이상	11.8	9.0	13.9	▲4.9	14.6	13.1	9.8	▽3.3

연령	술 깨는 약 사용경험(%)				머리 맑게 하는 약 사용경험(%)			
	2006년	2007년	2008년	Gap	2006년	2007년	2008년	Gap
20대	9.0	14.9	10.2	▽4.7	19.7	20.0	10.2	▽9.8
30대	15.5	12.3	9.7	▽2.6	12.0	15.7	8.9	▽6.8
40대	7.6	10.5	10.0	▽0.5	8.5	10.1	8.1	▽2.0
50대이상	6.3	6.9	8.0	▲1.1	5.6	5.9	3.8	▽2.1

※ Gap(%): (2008년 사용경험률) - (2007년 사용경험률)

2. 조기유학생들의 마약류 문제 대처방안

- 조기유학생들이 마약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기유학생 및 학부모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의무화’(42.7%)가 1순위로 나타남.



* 무응답: 0.3%

- 특히 여성이나 40대, 광주/전라 지역, 주부의 경우 ‘조기유학생 및 학부모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의무화’ 방안에 대한 공감률이 높게 나타남.

3. 마약류 중독 회복자에 대한 인식

응답 내용	%
① 이웃과 함께 관심 갖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	55.4
②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경각심을 갖고 어울리지는 않겠다	26.8
③ 관심을 갖지 않겠다	14.2
④ 이웃들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것을 요구하겠다	3.2
무응답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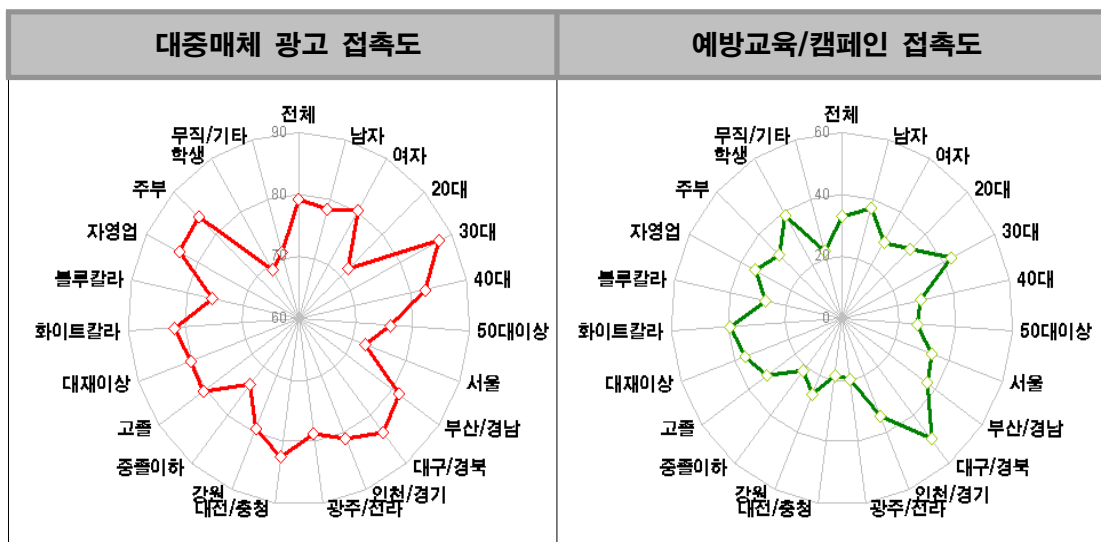
- 치료재활에 성공한 마약류 중독 회복자와의 공동생활에 대해 일반국민의 과반수이상(55.4%)은 ‘관심을 갖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적극적 태도를 제시함.
- 반면 마약류 중독 회복자와의 공동생활에 소극적 태도(② ‘어울리지는 않겠다’ + ③ ‘관심을 갖지 않겠다’)를 나타낸 비율은 41.0%이며, 적극적 반대(④ ‘이주 요구’)는 3.2%로 나타남.
- 특히 ‘관심을 갖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적극적 태도는 남성, 고연령층, 저학력층, 자영업자에서 높게 나타남.

3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활동 인식

1.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홍보활동 접촉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홍보활동	접촉도(%)
가. 마약류나 남용약물 예방을 위한 대중매체 광고	79.3
나. 마약류나 남용약물에 관한 예방교육이나 캠페인	32.7
다. 중독자 재활 위한 송천재활센터 및 재활교육	6.3
라. 마약류나 남용약물 예방을 위한 상담	4.4
마.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홈페이지 방문	1.1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홍보활동 중 마약류나 남용약물 예방을 위한 ‘대중매체 광고’의 접촉도가 79.3%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방송매체’(79.7%)를 통해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폐해나 위험성을 알게 되었다는 조사결과와도 연결될 수 있음.
- 반면, 마약류나 남용약물에 관한 ‘예방교육/캠페인’ 접촉도는 32.7%, ‘중독자 재활 위한 송천재활센터 및 재활교육’ 접촉도는 6.3%, ‘마약류나 남용약물 예방을 위한 상담’ 홍보 접촉도는 4.4%,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홈페이지 방문 경험’은 1.1%로 나타남.



2. 향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사업 방향

- 일반국민의 61.6%는 향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사업이 ‘마약류 예방을 위한 홍보나 교육사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함.
- 그 다음으로 ‘마약류 중독자 치료사업’(19.3%),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사업’(15.4%), ‘마약류 연구사업’(2.9%) 순으로 응답함.



- 학력이 낮을수록 ‘마약류 예방을 위한 홍보나 교육사업’과 ‘마약류 연구사업’을 요구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난 반면, 학력이 높을수록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사업’이나 ‘마약류 중독자 치료사업’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됨.

(단위:%)

구 분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사업	마약류 중독자 치료사업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사업	마약류 연구사업
성	남성	60.3	20.4	15.9	3.1
	여성	62.9	18.3	14.9	2.8
학력	중졸이하	62.9 ↑	15.7 ↓	13.6 ↓	5.0 ↑
	고졸	62.8	19.3	14.2 ↓	2.7
	대재이상	60.5	20.2 ↓	16.6 ↓	2.5

4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 방지 방안

1.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 방지 방안

응답 내용	%
초·중·고 교과목 중 마약류 예방 교육시간 배당	34.7
TV 등 대중매체를 통한 마약퇴치 홍보 프로그램 방영	30.2
마약류 사용자 및 유통자, 제조자에 대한 처벌 강화	24.6
마약중독자 치료 및 재활 등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강화	10.3
무응답	0.2

- 일반국민들은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을 막기 위해 ‘TV 등 대중매체를 통한 마약퇴치 홍보 프로그램 방영’(30.2%)보다 ‘초·중·고 교과목 중 마약류 예방 교육시간 배당’(34.7%)을 1순위로 제시함으로써, 교육을 통한 사전예방 활동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냄.
- 특히 ‘초·중·고 교과목 중 마약류 예방 교육시간 배당’을 1순위로 지정한 응답자는 고연령층 및 저학력층에서 높게 나타남.
- 마약류/약물남용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집단(N=783)은 ‘초·중·고 교과목 중 마약류 예방 교육시간 배당’(36.7%)을 1순위로 제시하였으며,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집단(N=217)은 ‘대중매체를 통한 마약퇴치 홍보 프로그램 방영’(30.4%)을 1순위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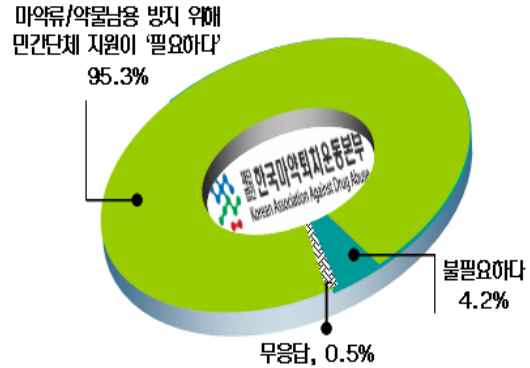
(단위:%)

집단 구분	초중고 대상 마약류 예방 교육시간 배당	대중매체를 통한 마약퇴치 홍보 프로그램 방영	마약류 제조/유통/사용자의 처벌 강화	마약류 중독자 치료, 재활 등 사회복귀 지원강화
마약류/약물남용 심각성 인식 집단 (N=783)	36.7↑	30.1	23.4	9.6
마약류/약물남용 심각성 비인식 집단 (N=217)	27.6	30.4↑	29.0	12.9

2.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한 민간단체 활동 지원 필요성

일반국민 대다수(95.3%)는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행정력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의 활동에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매우 필요하다’ : 45.6%
- ‘대체로 필요하다’ : 49.7%



이러한 결과는 민간단체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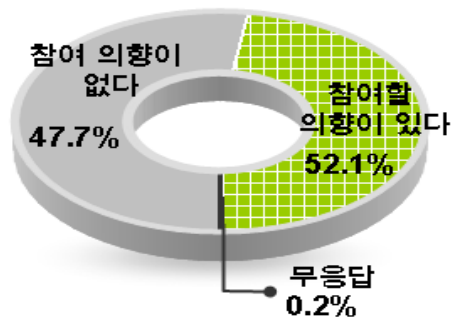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 방지 방안’의 응답내용에 따른 ‘민간단체 활동 지원 필요성’을 분석해 보면, ‘확산 방지 방안’에 관계없이 대다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냄.

특히 ‘대중매체를 통한 마약퇴치 홍보 프로그램 방영’, ‘마약류 중독자 치료, 재활 등 사회복귀 지원강화’, ‘초·중·고 대상 마약류 예방 교육시간 배당’ 등 교육과 홍보, 사회적 지원을 통해 마약류 확산 방지를 강조하는 응답자일수록 민간단체 지원 필요성을 높게 인식함.

(단위:%)

마약류 확산 방지위한 민간단체 활동 지원 필요성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 방지 방안		
초·중·고 대상 마약류 예방 교육시간 배당	96.8	3.2
대중매체를 통한 마약퇴치 홍보 프로그램 방영	95.7	4.3
마약류 중독자 치료, 재활 등 사회복귀 지원강화	97.1	2.9
마약류 제조/유통/사용자의 처벌 강화	94.3	5.7

3.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한 민간단체 활동 참여 의향



■ 일반국민 과반수 이상(52.1%)이 향후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을 막기 위해 민간단체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적극 참여하고 싶다' : 9.4%
- '다소 있는 편이다' : 42.7%

5 총 평

▣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인식

-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에 대해 일반국민 10명 중 6명이상(61.5%)이 ‘우리 사회구성원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남. 지난 2007년도 결과(60.9%)와 비교해 볼 때,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증가(▲0.6%p)하였음.
- 우리나라 국민들의 10명 중 8명 정도(78.3%)는 개인적으로 마약류 및 약물남용이 ‘심각하다’는 견해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 대다수(79.7%)는 ‘방송매체’를 통해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폐해나 위험성을 알게 되는 것으로 분석됨.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낮게 인식하는 집단’(N=132)은 여성, 30대, 학력이 높을수록, 주부, 인천/경기 거주자로 분류되고 있어, 이들의 특성에 맞는 홍보방안이 요망됨.

▣ 마약류 및 남용약물 사용경험

- 마약류 및 남용약물과 관련하여 ‘피로 회복제’(12.2%)의 사용 경험률이 1순위로 조사됨. 그 다음으로 ‘살 빼는 약’(10.7%), ‘술 깨는 약’(9.4%), ‘머리가 맑아지는 약 혹은 근육을 키워주는 약’(7.6%) 순으로 나타남.
- 지난 2007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 때, 모든 약물에 대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피로회복제’와 ‘술 깨우는 약’은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임.
- 연령대별 마약류 및 남용약물의 사용경험을 살펴보면, ‘피로회복제’ 사용경험에서 50대 이상과 30대, ‘술 깨는 약’ 사용경험에서 50대 이상 연령층의 사용 경험 증가가 나타남.
- 조기유학생들이 마약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기유학생/부모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의무화’(42.7%)와 ‘약물예방교육의 학교 정규교과 과정 채택’(32.5%) 방안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음.

- 치료재활에 성공한 마약류 중독 회복자와의 공동생활에 대해 일반국민의 과반수 이상(55.4%)은 ‘관심을 갖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적극적 태도를 제시함. 반면, 소극적 태도(② ‘어울리지 않겠다’ + ③ ‘관심을 갖지 않겠다’)는 41.0%이며, 적극적 반대(④ ‘이주 요구’)는 3.2%로 나타남.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심각성과 위험성 자각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중독 회복자에 대한 소극적이거나 적극적 반대 태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임. 마약류 중독 회복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아울러 사회구성원들의 관심 유발 및 태도 개선을 위한 지원이 요망됨.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활동 인식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홍보활동 중 마약류나 남용약물 예방을 위한 ‘대중매체 광고’의 접촉도가 79.3%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방송매체를 통해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폐해나 위험성을 알게 되었다’(79.7%)는 조사결과와도 연결될 수 있음.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홍보활동 중 마약류나 남용약물에 관한 ‘예방교육/캠페인’ 접촉도는 32.7%, ‘중독자 재활 위한 송천재활센터 및 재활교육’ 6.3%, ‘마약류나 남용약물 예방을 위한 상담’ 홍보 접촉도 4.4%,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홈페이지 방문경험’은 1.1%로 각각 나타남.
- 일반국민의 61.6%는 향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사업방향으로 ‘마약류 예방을 위한 홍보나 교육사업’을 펼쳐나가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고, 다음으로 ‘마약류 중독자 치료사업’(19.3%),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사업’(15.4%), ‘마약류 연구사업’(2.9%) 순으로 응답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홍보활동 접촉경로가 주로 TV 등 대중매체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은 홍보활동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향후 다채널 다매체 환경에 맞춰 홍보활동 집행매체의 다변화가 요망됨.

■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 방지 방안

- 일반국민들은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을 막기 위한 최우선 방안으로 ‘초·중·고 교과목 중 마약류 예방 교육시간 배당’(34.7%)을 제시하여 교육을 통한 사전예방 활동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냄.
- 일반국민 대다수(95.3%)는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행정력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의 활동에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민간단체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일반국민 과반수 이상(52.1%)은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을 막기 위해 민간단체의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힘.



일반국민들은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을 막기 위해 ‘처벌 강화’보다 ‘마약류 예방 교육 강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마약류 예방 교육’을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하기 위한 여론확산 전략이 요망됨.



Contents

Ⅲ 조사 결과 분석

1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인식

2 마약류 및 남용약물 사용경험

3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활동 인식

4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 방지 방안

5 치료보호제도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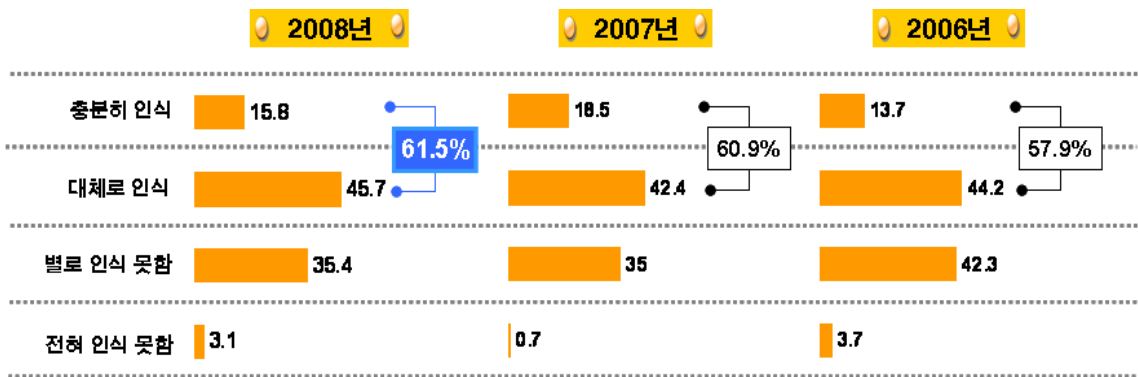


1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인식

1.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정도

- 일반국민의 10명 중 6명 이상(61.5%)은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인식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38.5%로 나타나 위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지난, '07년 대비 '08년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사회적 인식은 0.6%p 상승된 것으로 분석됨.

<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정도 >



-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위험성과 심각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집단’은 67.7%로 나타나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위험성 및 체감도가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마약류 및 약물남용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한 인식 >

위험성 인식정도(%)	인식	비인식
사회적 심각성(%)		
심각한 편	67.7	32.3
심각하지 않은 편	39.2	60.8

응답자 특성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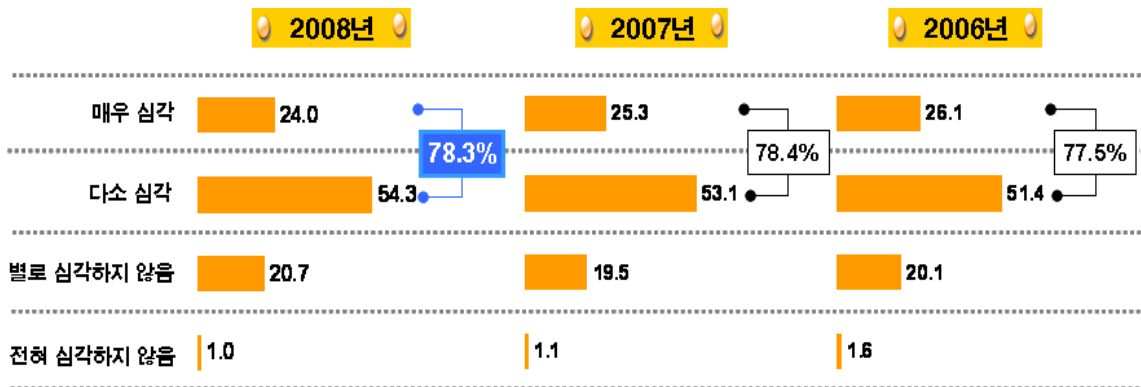
- ‘사회구성원이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견은 연령이 높을수록, 서울(70.6%), 학력이 낮을수록, 화이트칼라(72.8%) 및 블루칼라(63.9%), 월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72.8%) 소득층에서 공감도가 높았음.
-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 광주/전라(50.8%), 학력이 높을수록, 학생(51.2%), 월 가구평균 101만원-200만원(41.1%) 소득층에서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됨.

		사례수	충분히 인식	대체로 인식	별로 인식하지 못함	전혀 인식하지 못함	인식	비인식
전체		1,000명	15.8%	45.7%	35.4%	3.1%	61.5%	38.5%
성	남자	491	18.3	43.2	34.4	4.1	61.5	38.5
	여자	509	13.4	48.1	36.3	2.2	61.5	38.5
연령	20대	244	8.2	43.4	44.3	4.1	51.6	48.4
	30대	258	12.4	48.8	36.0	2.7	61.2	38.8
	40대	211	19.4	44.1	34.1	2.4	63.5	36.5
	50대이상	287	22.6	46.0	28.2	3.1	68.6	31.4
지역	서울	221	17.6	52.9	27.6	1.8	70.6	29.4
	부산/경남	167	18.6	41.9	35.3	4.2	60.5	39.5
	대구/경북	116	15.5	46.6	33.6	4.3	62.1	37.9
	인천/경기	241	12.0	49.4	35.7	2.9	61.4	38.6
	광주/전라	118	15.3	33.9	47.5	3.4	49.2	50.8
	대전/충청	103	17.5	37.9	41.7	2.9	55.3	44.7
	강원	34	14.7	52.9	29.4	2.9	67.6	32.4
학력	중졸이하	140	25.7	42.9	26.4	5.0	68.6	31.4
	고졸	331	15.7	45.6	36.6	2.1	61.3	38.7
	대재이상	529	13.2	46.5	37.1	3.2	59.7	40.3
직업	화이트칼라	236	13.6	50.4	32.6	3.4	64.0	36.0
	블루칼라	119	21.8	42.0	33.6	2.5	63.9	36.1
	자영업	127	16.5	47.2	31.5	4.7	63.8	36.2
	주부	299	16.1	46.8	35.5	1.7	62.9	37.1
	학생	129	9.3	39.5	47.3	3.9	48.8	51.2
	무직/기타	90	21.1	41.1	33.3	4.4	62.2	37.8
소득	100만원이하	92	28.3	44.6	23.9	3.3	72.8	27.2
	101-200만원	141	18.4	40.4	35.5	5.7	58.9	41.1
	201-300만원	223	14.3	47.5	36.3	1.8	61.9	38.1
	301-400만원	183	12.6	49.7	35.5	2.2	62.3	37.7
	401만원이상	249	14.1	47.4	35.7	2.8	61.4	38.6
	무응답	112	14.3	39.3	42.0	4.5	53.6	46.4
장기해외체류경험	있음	80	16.3	46.3	37.5	0.0	62.5	37.5
	없음	917	15.7	45.7	35.2	3.4	61.4	38.6
	무응답	3	33.3	33.3	33.3	0.0	66.7	33.3

2.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심각성에 대한 개인적 인식 정도

- 우리나라 일반국민들의 78.3%는 개인적으로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해 ‘심각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반면, ‘심각하지 않다’라는 의견은 21.7%로 나타남.
- 지난 '07년 대비 '08년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는 의견은 비슷한 수준(▽0.1%p)인 것으로 조사됨.
- 대검찰청 마약부 '08년 8월 자료를 보면, 마약류 사범 단속누계는 '07년 8월에 비해 '08년 8월 기준 ▽3.1%p 소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인 것으로 분석됨.

<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심각성에 대한 개인적 인식 정도 >



< 연도별 마약류사범 단속 현황(단위: 명) >

구분	'08.8	'07.8	'06	'05	'04	'03	'02	'01	'00	'99	'98	'97
사범수	6,700	6,912	7,709	7,154	7,747	7,546	10,673	10,102	10,304	10,589	8,350	6,947
마약	1,001	852	868	768	1,203	1,211	790	661	954	923	892	1,201
향정	5,046	5,324	6,006	5,354	5,313	4,727	7,918	7,959	7,066	7,479	5,852	4,445
대마	653	736	835	1,032	1,231	1,608	1,965	1,482	2,284	2,187	1,606	1,301
변화	▽3.1%p											

<자료> 대검찰청 마약부: 마약관련 통계자료 2008년 8월

응답자 특성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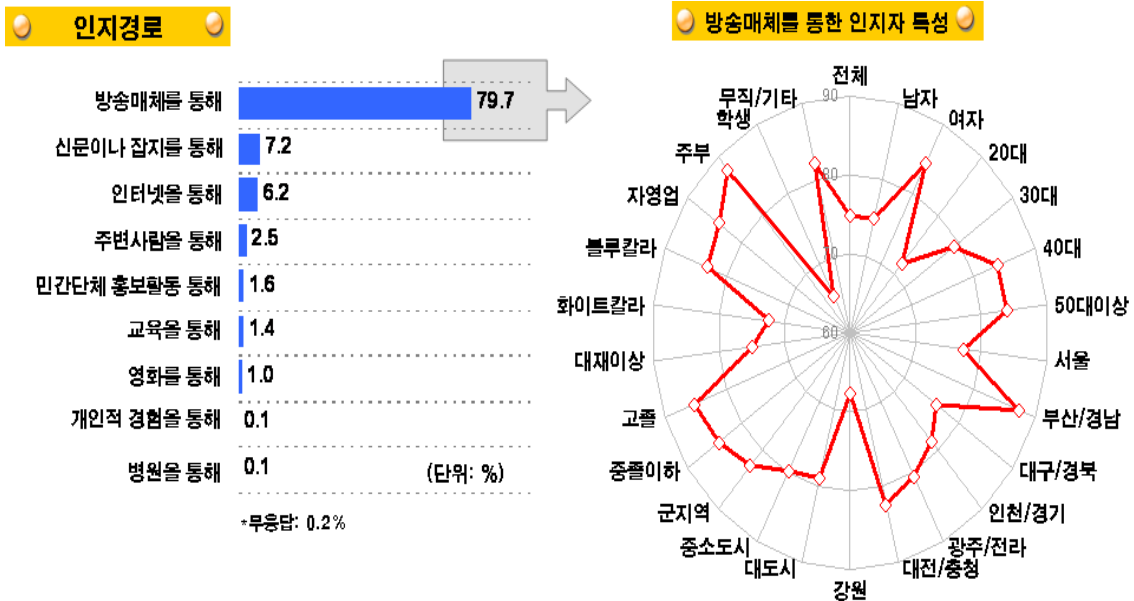
-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마약류 및 약물남용이 심각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자는 여성(79.0%), 50대이상(84.0%), 서울(82.8%) 및 대구/경북(81.9%), 학력이 낮을수록, 주부(82.3%) 및 블루칼라(81.5%)에서 높았음.
- 반면, 남성(22.4%), 20대(26.2%), 인천/경기(25.3%) 및 대전/충청(25.2%), 학력이 높을수록, 학생(28.7%), 월 가구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마약류 및 약물남용이 심각하지 않다’는 견해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사례수	매우 심각	다소 심각	별로심각 하지않음	전혀심각 하지않음	심 각	비심각
전 체		1,000명	24.0%	54.3%	20.7%	1.0%	78.3%	21.7%
성	남자	491	20.8	56.8	21.6	0.8	77.6	22.4
	여자	509	27.1	51.9	19.8	1.2	79.0	21.0
연령	20대	244	13.1	60.7	25.0	1.2	73.8	26.2
	30대	258	23.6	53.9	20.9	1.6	77.5	22.5
	40대	211	26.1	50.7	21.8	1.4	76.8	23.2
	50대이상	287	32.1	51.9	16.0	0.0	84.0	16.0
지역	서울	221	19.0	63.8	15.8	1.4	82.8	17.2
	부산/경남	167	25.7	52.7	20.4	1.2	78.4	21.6
	대구/경북	116	28.4	53.4	17.2	0.9	81.9	18.1
	인천/경기	241	20.7	53.9	24.1	1.2	74.7	25.3
	광주/전라	118	28.8	47.5	23.7	0.0	76.3	23.7
	대전/충청	103	27.2	47.6	24.3	1.0	74.8	25.2
	강원	34	29.4	50.0	20.6	0.0	79.4	20.6
학력	중졸이하	140	37.1	50.0	12.1	0.7	87.1	12.9
	고졸	331	27.8	51.7	19.9	0.6	79.5	20.5
	대재이상	529	18.1	57.1	23.4	1.3	75.2	24.8
직업	화이트칼라	236	21.2	55.1	22.5	1.3	76.3	23.7
	블루칼라	119	27.7	53.8	17.6	0.8	81.5	18.5
	자영업	127	26.0	50.4	21.3	2.4	76.4	23.6
	주부	299	28.8	53.5	17.4	0.3	82.3	17.7
	학생	129	14.0	57.4	27.9	0.8	71.3	28.7
	무직/기타	90	22.2	56.7	20.0	1.1	78.9	21.1
소득	100만원이하	92	38.0	44.6	17.4	0.0	82.6	17.4
	101-200만원	141	27.0	56.0	14.9	2.1	83.0	17.0
	201-300만원	223	24.2	54.3	20.2	1.3	78.5	21.5
	301-400만원	183	21.3	56.3	22.4	0.0	77.6	22.4
	401만원이상	249	21.7	55.4	21.7	1.2	77.1	22.9
	무응답	112	17.9	54.5	26.8	0.9	72.3	27.7
장기해외 체류경험	있음	80	23.8	55.0	20.0	1.3	78.8	21.3
	없음	917	24.0	54.2	20.8	1.0	78.2	21.8
	무응답	3	33.3	66.7	0.0	0.0	100.0	0.0

3.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피해 인지경로

- 일반국민의 대다수(79.7%)는 ‘TV나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해서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따른 피해나 위험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다음은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서’(7.2%), ‘인터넷을 통해서’(6.2%), ‘주변사람을 통해서’(2.5%), ‘민간단체의 예방교육이나 홍보활동을 통해’(1.6%), ‘학교 등의 교육을 통해’(1.4%) 등의 순으로 피해를 인지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힘.
- ‘TV나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해서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피해를 인지한 응답자는 여성(84.3%), 연령이 높을수록, 부산/경남(87.4%), 고졸(85.2%), 주부(87.6%) 및 자영업(84.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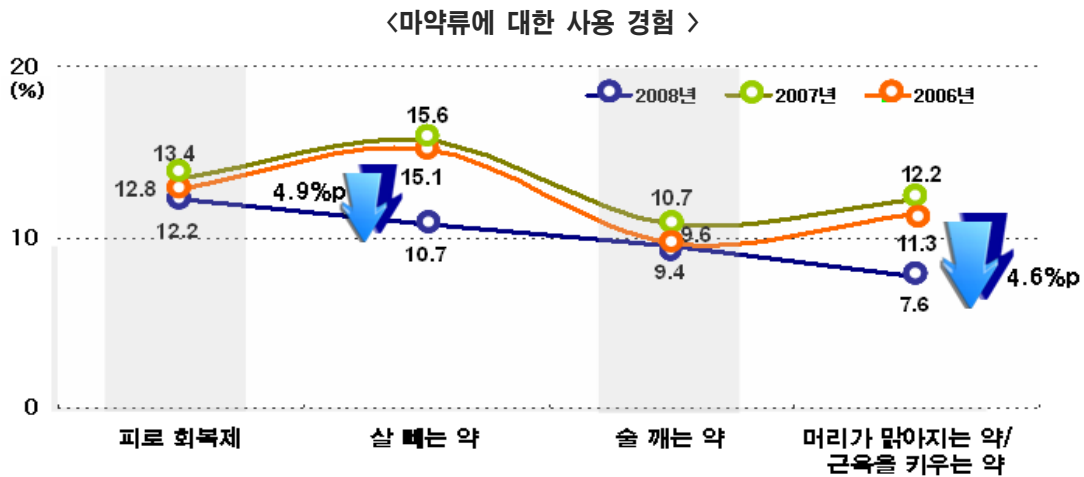
<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피해 인지경로 >



2 마약류 및 남용약물 사용경험

1. 마약류에 대한 사용 경험

- 실생활에서 마약류 및 남용약물의 사용경험을 살펴보면, ‘피로회복제’(12.2%)에 대한 사용 경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다음은 ‘살 빼는 약’(10.7%), ‘술 깨는 약’(9.4%), ‘머리가 맑아지는 약 혹은 근육을 키우는 약’(7.6%)의 순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마약류 및 남용약물 사용 경험률은 '07년도 조사결과 대비 유사한 수준(‘살 빼는 약’은 '07년 대비 ∇ 4.9%p, ‘머리가 맑아지는 약 혹은 근육을 키우는 약’은 '07년 대비 ∇ 4.6%p)이지만, 조사시 제시한 모든 약물에 대해서 일반국민이 사용경험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마약류 및 불법의약품에 대한 인식 및 안전 불감증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한편, 마약류 및 약물을 사용한 유경험자들은 약물남용의 사회적 심각성 및 위험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지하고 있으며, 특히, 장기해외체류 경험자가 비경험자에 비해 불법의약품 사용 경험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됨.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제조업체와 제품명이 확인되지 않은

- ⇒ ‘피로회복제’ 사용경험은 여성(12.8%), 30대(17.4%), 광주/전라(16.1%), 고졸(13.9%), 주부(15.1%), 월 가구평균 301-400만원(16.9%)에서 높았음.
- ⇒ ‘살 빼는 약’ 사용경험은 여성(13.6%), 40대(13.3%) 및 30대(13.2%), 서울(16.3%), 고졸(12.4%), 주부(15.7%), 월 가구평균 401만원 이상(12.9%)에서 높았음.
- ⇒ ‘술 깨는 약’ 사용경험은 남성(11.8%), 10대(10.2%) 및 40대(10.0%), 서울(15.8%), 대재이상(10.0%), 학생(13.2%)에서 높았음.
- ⇒ ‘머리 맑아지는 약 및 근육 키우는 약’ 사용경험은 남성(9.4%), 연령이 낮을수록, 서울(12.7%), 학력이 높을수록, 학생(14.7%)에서 높았음.

		사례수	피로 회복제		살 빼는 약		유흥업소에서 유통되는 술 깨는 약		머리가 맑아지는 약/근육을 키우는 약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전 체		1,000명	12.2%	87.8%	10.7%	89.3%	9.4%	90.6%	7.6%	92.4%
성	남자	491	11.6	88.4	7.7	92.3	11.8	88.2	9.4	90.6
	여자	509	12.8	87.2	13.6	86.4	7.1	92.9	5.9	94.1
연령	20대	244	5.3	94.7	7.0	93.0	10.2	89.8	10.2	89.8
	30대	258	17.4	82.6	13.2	86.8	9.7	90.3	8.9	91.1
	40대	211	11.4	88.6	13.3	86.7	10.0	90.0	8.1	91.9
	50대이상	287	13.9	86.1	9.8	90.2	8.0	92.0	3.8	96.2
지역	서울	221	13.6	86.4	16.3	83.7	15.8	84.2	12.7	87.3
	부산/경남	167	9.0	91.0	7.8	92.2	8.4	91.6	7.2	92.8
	대구/경북	116	14.7	85.3	4.3	95.7	8.6	91.4	3.4	96.6
	인천/경기	241	10.0	90.0	10.4	89.6	4.6	95.4	5.0	95.0
	광주/전라	118	16.1	83.9	10.2	89.8	5.9	94.1	4.2	95.8
	대전/충청	103	5.8	94.2	7.8	92.2	7.8	92.2	7.8	92.2
학력	강원	34	32.4	67.6	23.5	76.5	26.5	73.5	20.6	79.4
	중졸이하	140	12.9	87.1	10.7	89.3	9.3	90.7	2.9	97.1
	고졸	331	13.9	86.1	12.4	87.6	8.5	91.5	7.3	92.7
직업	대재이상	529	11.0	89.0	9.6	90.4	10.0	90.0	9.1	90.9
	화이트칼라	236	11.9	88.1	9.3	90.7	8.1	91.9	7.6	92.4
	블루칼라	119	9.2	90.8	10.1	89.9	11.8	88.2	5.9	94.1
	자영업	127	13.4	86.6	11.0	89.0	9.4	90.6	7.9	92.1
	주부	299	15.1	84.9	15.7	84.3	7.7	92.3	6.4	93.6
	학생	129	7.8	92.2	5.4	94.6	13.2	86.8	14.7	85.3
소득	무직/기타	90	12.2	87.8	5.6	94.4	10.0	90.0	3.3	96.7
	100만원이하	92	9.8	90.2	7.6	92.4	13.0	87.0	5.4	94.6
	101-200만원	141	12.1	87.9	12.8	87.2	5.0	95.0	4.3	95.7
	201-300만원	223	12.1	87.9	10.3	89.7	8.5	91.5	7.6	92.4
	301-400만원	183	16.9	83.1	10.9	89.1	11.5	88.5	9.3	90.7
	401만원이상	249	12.9	87.1	12.9	87.1	10.0	90.0	9.2	90.8
	무응답	112	5.4	94.6	6.3	93.8	8.9	91.1	7.1	92.9

2. 조기유학생들의 마약류 문제 대처방안

- 조기유학생들이 마약류에 노출되지 않기 위한 최우선 방안으로 ‘조기유학생 및 학부모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의 의무화’(42.7%)를 1순위로 꼽음.
- 다음은 ‘학교에서 약물예방교육교과 과정으로 채택’(32.5%), ‘마약류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한 출입국 통제’(17.7%), ‘조기유학생 및 학부모의 자율에 맡김’(6.7%)의 순으로 대처방안을 제시함.

〈 조기유학생들의 마약류 문제 대처방안 〉



* 무응답: 0.3%

-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사회적 심각성 공감도가 높고 낮은 집단 모두 ‘마약류 예방교육 의무화’를 주요 방안으로 꼽음. 단, ‘문제자 출입국 통제’와 ‘자율에 맡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심각성의 공감도가 낮은 집단에서 다소 높게 나타남.

〈 사회적 심각성 인식에 정도에 따른 조기유학생 마약류 문제 대처방안 〉

대처방안(%)	마약류 예방교육 의무화	학교에서 정규교과 과정 채택	문제자 출입국 통제	자율에 맡김	처벌강화
사회적 심각성					
심각한 편	43.4	34.0	16.3	5.9	0.0
심각하지 않은 편	40.1	27.7	22.6	9.7	0.5

* 무응답 제외

응답자 특성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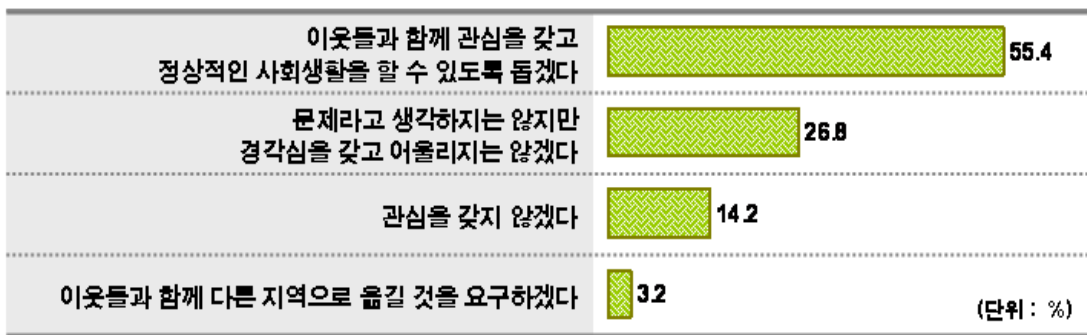
- 조기 유학생들이 마약류에 노출되지 않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예방 방안으로 ‘조기유학생 및 학부모 대상 마약류 교육의 의무화’ 의견은 여성(44.6%), 40대(48.3%), 광주/전라(52.5%), 주부(48.5%)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학교에서 약물예방교육을 정규교과 과정으로 채택해야 한다’라는 방안에 대해 여성(34.8%), 20대(35.2%), 인천/경기(38.6%), 고졸(34.7%), 학생(34.9%) 및 블루칼라(34.5%)가 상대적으로 높게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사례수	예방교육 의무화	학교에서 정규 과정 채택	문제자 출입국 통제	자율에 맡김	처벌강화
전 체		1,000명	42.7%	32.5%	17.7%	6.7%	0.1%
성	남자	491	40.7	30.1	21.2	7.3	0.2
	여자	509	44.6	34.8	14.3	6.1	0.0
연령	20대	244	36.1	35.2	21.3	7.4	0.0
	30대	258	44.2	33.3	15.9	6.6	0.0
	40대	211	48.3	31.8	11.4	8.5	0.0
	50대이상	287	42.9	30.0	20.9	4.9	0.3
지역	서울	221	41.6	27.1	23.5	7.2	0.0
	부산/경남	167	38.3	35.9	18.0	7.8	0.0
	대구/경북	116	49.1	26.7	19.8	3.4	0.0
	인천/경기	241	41.5	38.6	10.8	8.7	0.4
	광주/전라	118	52.5	28.0	17.8	1.7	0.0
	대전/충청	103	36.9	35.0	18.4	8.7	0.0
학력	강원	34	41.2	35.3	17.6	5.9	0.0
	중졸이하	140	44.3	28.6	18.6	7.9	0.0
	고졸	331	41.4	34.7	16.0	6.9	0.3
직업	대재이상	529	43.1	32.1	18.5	6.2	0.0
	화이트칼라	236	43.6	30.5	18.2	7.2	0.4
	블루칼라	119	40.3	34.5	19.3	5.9	0.0
	자영업	127	43.3	29.1	15.0	11.0	0.0
	주부	299	48.5	32.1	14.7	4.3	0.0
	학생	129	34.1	34.9	24.0	7.0	0.0
소득	무직/기타	90	35.6	37.8	18.9	7.8	0.0
	100만원이하	92	39.1	28.3	22.8	9.8	0.0
	101-200만원	141	47.5	29.1	16.3	5.7	0.7
	201-300만원	223	40.4	32.7	18.4	8.1	0.0
	301-400만원	183	44.8	31.1	19.7	4.4	0.0
	401만원이상	249	39.8	35.7	18.5	6.0	0.0
장기해외 체류경험	무응답	112	47.3	34.8	8.9	8.0	0.0
	있음	80	40.0	26.3	25.0	7.5	0.0
	없음	917	42.9	33.0	17.1	6.7	0.1
	무응답	3	66.7	33.3	0.0	0.0	0.0

3. 마약류 중독 회복자에 대한 인식

- 일반국민들의 과반수 이상(55.4%)은 마약류 및 약물남용자들이 성공적으로 재활치료 후 같은 지역 거주할 경우 ‘이웃들과 함께 관심을 갖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제시함.
- 반면, 3.2%는 ‘이웃들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것을 요구하겠다’라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여 마약류 중독 회복자와의 공동생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의 41.0%는 중독 회복자와의 공동생활에 대한 소극적 태도(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경각심을 갖고 어울리지 않겠다 26.8% + 관심을 갖지 않겠다 14.2%)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냉소적인 것으로 분석됨.

〈마약류 중독 회복자에 대한 인식〉



-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과 구성원의 사회적 위험성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집단 모두 ‘관심을 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돕겠다’라는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 반면,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과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집단은 전반적으로 무관심과 같은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양상임.

〈사회적 인식에 따른 마약류 중독 회복자에 대한 인식〉

심각성 및 위험성 인식 마약류 중독 회복자에 대한 인식	사회적 심각성 정도(%)		사회구성원의 위험성 인식정도(%)	
	심각한 편	심각하지 않은 편	인식하는 편	인식하지 않은 편
서로 돕겠다	55.8	53.9	58.0	51.2
문제없지만 어울리지 않겠다	28.0	22.6	27.6	25.5
관심을 갖지 않겠다	12.9	18.9	10.7	19.7
타지역으로 이전요구	2.9	4.1	3.3	3.1

* 무응답 제외

응답자 특성별 분석

- 마약류 중독 회복자가 같은 지역에 거주 시 ‘이웃들과 함께 관심을 갖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는 적극적 태도를 보인 응답자는 남성(58.5%), 연령대가 높을수록, 대구/경북(65.5%) 및 광주/전라(65.3%), 학력이 낮을수록, 자영업(59.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여성(31.6%), 30대(30.6%), 서울(35.3%), 학력이 높을수록, 화이트칼라(31.8%) 및 주부(30.8%), 소득이 높을수록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울리지는 않겠다’는 방관적인 태도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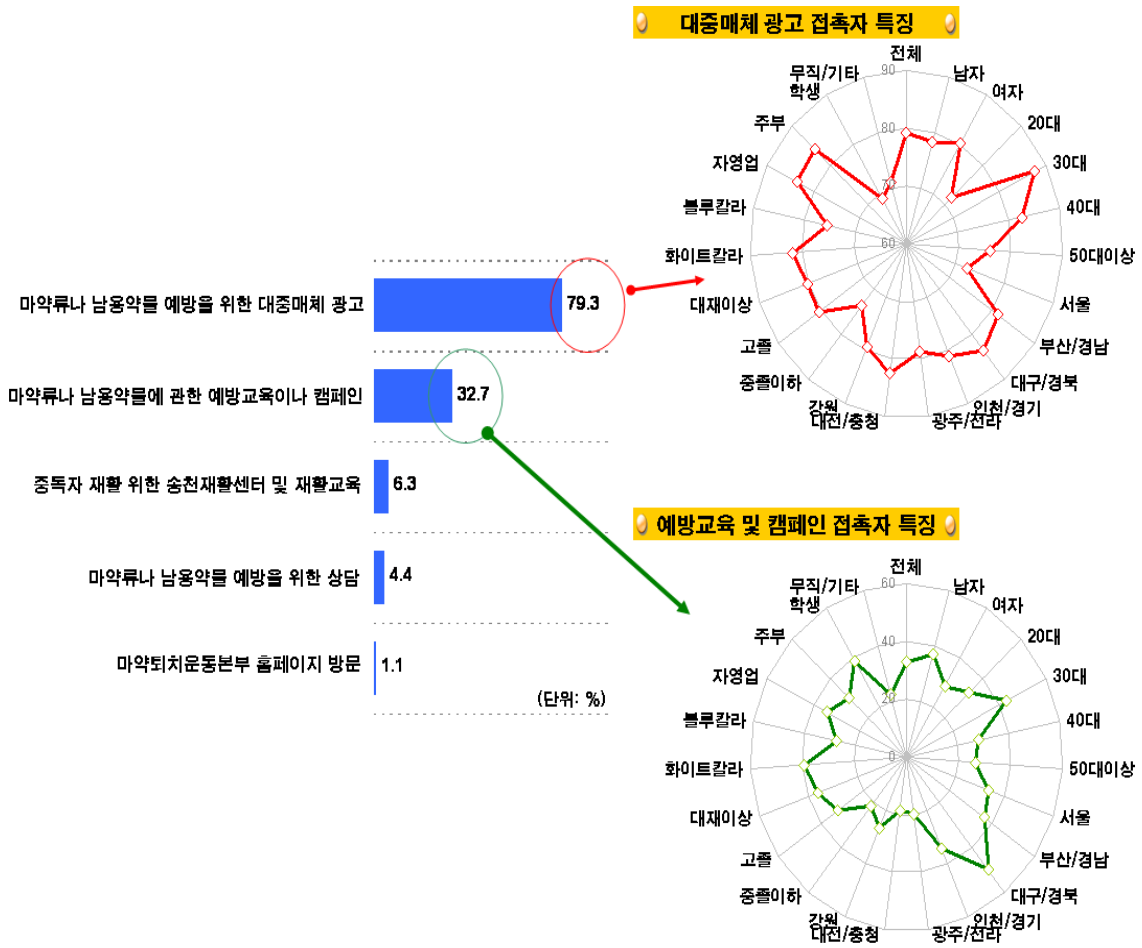
		사례수	서로 돕겠다	문제없지만 어울리지 않음	관심을 안가짐	타지역 이전요구	무응답
전 체		1,000명	55.4%	26.8%	14.2%	3.2%	0.4%
성	남자	491	58.5	21.8	15.7	4.1	0.0
	여자	509	52.5	31.6	12.8	2.4	0.8
연령	20대	244	46.7	27.5	23.0	2.5	0.4
	30대	258	48.4	30.6	15.9	4.7	0.4
	40대	211	59.2	26.1	12.8	0.9	0.9
	50대이상	287	66.2	23.3	6.3	4.2	0.0
지역	서울	221	45.2	35.3	15.4	4.1	0.0
	부산/경남	167	64.1	20.4	13.8	1.8	0.0
	대구/경북	116	65.5	22.4	8.6	3.4	0.0
	인천/경기	241	48.5	31.1	15.8	3.3	1.2
	광주/전라	118	65.3	19.5	12.7	2.5	0.0
	대전/충청	103	57.3	22.3	17.5	1.9	1.0
학력	강원	34	52.9	26.5	11.8	8.8	0.0
	중졸이하	140	65.0	20.7	7.9	6.4	0.0
	고졸	331	61.0	25.4	11.5	1.8	0.3
직업	대재이상	529	49.3	29.3	17.6	3.2	0.6
	화이트칼라	236	50.0	31.8	14.0	3.4	0.8
	블루칼라	119	57.1	23.5	16.0	3.4	0.0
	자영업	127	59.8	19.7	18.9	1.6	0.0
	주부	299	56.9	30.8	9.4	2.3	0.7
	학생	129	47.3	27.9	23.3	1.6	0.0
소득	무직/기타	90	67.8	13.3	8.9	10.0	0.0
	100만원이하	92	69.6	14.1	8.7	7.6	0.0
	101-200만원	141	62.4	22.0	9.2	6.4	0.0
	201-300만원	223	54.7	29.6	13.9	1.8	0.0
	301-400만원	183	50.8	30.1	16.9	2.2	0.0
	401만원이상	249	51.0	31.3	15.3	2.0	0.4
장기해외 체류경험	무응답	112	53.6	22.3	18.8	2.7	2.7
	있음	80	48.8	33.8	15.0	2.5	0.0
	없음	917	55.8	26.3	14.2	3.3	0.4
		3	100.0	0.0	0.0	0.0	0.0

3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활동 인식

1.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활동 접촉도

- 일반국민의 10명 중 8명 정도(79.3%)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홍보활동 중 마약류나 남용약물 예방을 위한 ‘대중매체 광고’를 가장 많이 접촉한 것으로 나타남.
- ‘마약류나 남용약물에 관한 예방교육이나 캠페인’ 접촉도는 32.7%, ‘중독자 재활을 위한 송천재활센터 및 재활교육’에 대한 접촉도는 6.3%, ‘마약류나 남용약물 예방을 위한 상담’ 접촉도는 4.4% ‘마약퇴치운동본부 홈페이지 방문’은 1.1%로 매우 미비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 특히, 가장 노출이 큰 ‘대중매체 광고’와 ‘예방교육 및 캠페인’ 접촉자는 30대, 학력이 높을수록, 대구/경북 거주자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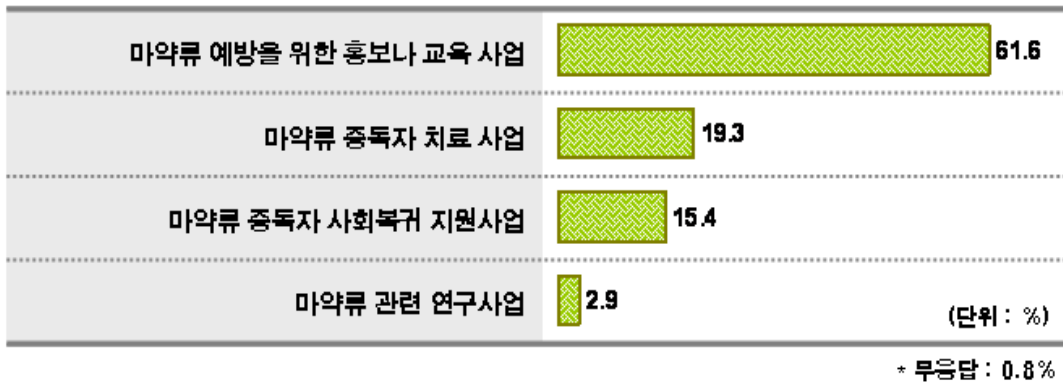
< 마약퇴치운동본부의 활동 접촉도 >



2. 향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사업 방향

- 일반국민 과반수 이상(61.6%)은 향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마약류 예방을 위한 홍보나 교육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다음으로 ‘마약류 중독자 치료 사업’(19.3%),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지 지원 사업’(15.4%), ‘마약류 관련 연구사업’(2.9%)의 순으로 의견을 제시함.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사업 방향 〉



-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사회적 심각성의 체감도와 관계없이 ‘마약류 예방을 위한 홍보나 교육사업’과 ‘마약류 중독자 치료사업’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향후 주요 강화 사업으로 꼽은 반면,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지 지원사업’ 및 ‘마약류 관련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심각성의 체감도가 낮은 집단에서 다소 높았음.

〈 사회적 심각성 인식에 정도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사업 방향 〉

사업방향(%)	마약류 예방을 위한 홍보나 교육사업	마약류 중독자 치료사업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지 지원사업	마약류 관련 연구사업
사회적 심각성				
심각한 편	62.3	19.2	15.2	2.7
심각하지 않은 편	59.0	19.8	16.1	3.7

* 무응답 제외

응답자 특성별 분석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향후 ‘마약류 예방을 위해 홍보나 교육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자는 여성(62.9%), 40대(67.8%), 인천/경기(66.4%), 학력이 낮을수록, 자영업(66.1%) 월 가구평균 201-300만원(64.1%) 소득층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반면, ‘마약류 중독자 치료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20.4%), 20대(28.3%), 대구/경북(26.7%), 학력이 높을수록, 학생(31.0%), 월 가구평균 101-200만원(22.0%) 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제시함.

		사례수	홍보나 교육사업	중독자 치료사업	사회복귀 지원사업	마약류 연구사업	무응답
전 체		1,000명	61.6%	19.3%	15.4%	2.9%	0.8%
성	남자	491	60.3	20.4	15.9	3.1	0.4
	여자	509	62.9	18.3	14.9	2.8	1.2
연령	20대	244	49.2	28.3	20.1	2.5	0.0
	30대	258	63.6	17.4	16.3	1.6	1.2
	40대	211	67.8	14.7	12.8	4.3	0.5
	50대이상	287	65.9	16.7	12.5	3.5	1.4
지역	서울	221	62.4	19.0	16.7	1.8	0.0
	부산/경남	167	56.3	24.6	15.6	3.0	0.6
	대구/경북	116	56.0	26.7	12.1	2.6	2.6
	인천/경기	241	66.4	19.1	11.6	1.2	1.7
	광주/전라	118	64.4	11.9	19.5	4.2	0.0
	대전/충청	103	61.2	13.6	21.4	3.9	0.0
학력	강원	34	58.8	14.7	11.8	14.7	0.0
	중졸이하	140	62.9	15.7	13.6	5.0	2.9
	고졸	331	62.8	19.3	14.2	2.7	0.9
직업	대재이상	529	60.5	20.2	16.6	2.5	0.2
	화이트칼라	236	61.9	14.4	19.1	3.8	0.8
	블루칼라	119	55.5	20.2	19.3	4.2	0.8
	자영업	127	66.1	15.7	15.7	2.4	0.0
	주부	299	64.9	19.4	12.0	2.0	1.7
	학생	129	48.8	31.0	17.8	2.3	0.0
소득	무직/기타	90	70.0	18.9	7.8	3.3	0.0
	100만원이하	92	63.0	19.6	8.7	6.5	2.2
	101-200만원	141	59.6	22.0	15.6	2.1	0.7
	201-300만원	223	64.1	17.0	15.2	3.6	0.0
	301-400만원	183	61.7	18.0	17.5	2.2	0.5
	401만원이상	249	62.7	19.3	15.7	2.4	0.0
장기해외 체류경험	무응답	112	55.4	22.3	17.0	1.8	3.6
	있음	80	62.5	15.0	13.8	8.8	0.0
	없음	917	61.5	19.7	15.5	2.4	0.9
	무응답	3	66.7	0.0	33.3	0.0	0.0

4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 방지 방안

1. 마약류 및 약물남용 방지를 위한 정책 방안

- 향후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초·중고 교과목 중 마약류 예방 교육시간 배당’(34.7%)을 1순위로 꼽음.
- 다음으로 ‘TV 등 대중매체를 통한 마약퇴치 홍보 프로그램 방영’(30.2%), ‘마약류 사용자 및 유통자, 제조자에 대한 처벌 강화’(24.6%), ‘마약중독자 치료 및 재활 등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강화’(10.3%)의 순으로 확산 방지 방안을 제시함.

〈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 방지 방안 〉



-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사회적 심각성과 위험성의 인식정도에 관계없이 ‘초·중·고 교과목 중 마약류 예방 교육시간 배당’과 ‘TV 등 대중매체를 통한 마약퇴치 홍보 프로그램 방영’을 마약류 및 약물남용 확산 방지의 주요 방안으로 제시함.
- 반면, 사회적 위험성의 인식도가 낮은 집단에서 ‘마약류 사용 및 유통자, 제조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마약중독자 치료 및 재활 등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강화’라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남.

〈 사회적 심각성 및 위험성 인식에 정도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남용 확산 방지방안 〉

방지방안(%)	예방 교육시간 배당	대중매체 홍보 프로그램 방영	처벌강화	사회복귀 지원강화
구분				
심각한 편	36.7	30.1	23.4	9.6
심각하지 않은 편	27.6	30.4	29.0	12.9
인식	36.3	29.3	23.3	11.2
비인식	32.2	31.7	26.8	8.8

* 무응답 제외

응답자 특성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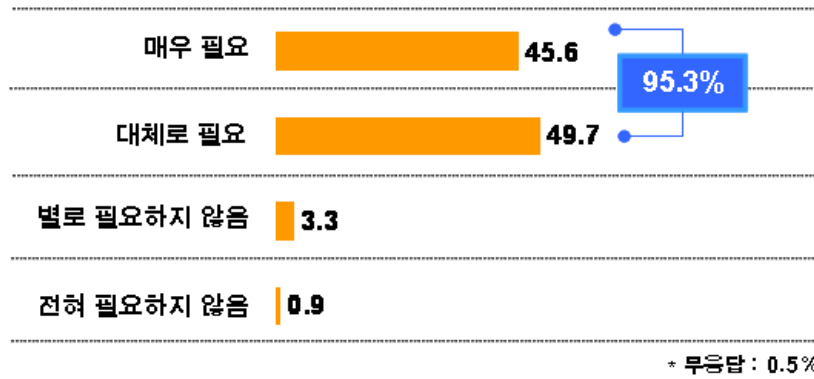
- 향후 미약류 및 약물남용 확산 방지 방안으로 ‘교과목 중 미약류 예방 교육시간 배당’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응답자는 여성(37.5%), 연령이 높을수록, 대전/충청(40.8%), 학력이 낮을수록, 주부(43.1%), 월 평균 401만원 이상(37.8%) 및 201-300만원(37.2%) 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남.
- 반면, 남성(31.2%), 연령이 높을수록, 서울(38.0%), 고졸(32.3%), 자영업(34.6%), 월 평균 301-400만원(33.9%) 소득층에서는 ‘대중매체 활용을 통한 마약퇴치 프로그램 방영’이라는 의견에 높은 공감도를 보임.

		사례수	예방 교육 시간 배당	대중매체 홍보 프로그램 방영	처벌강화	사회복귀 지원강화	무응답
전 체		1,000명	34.7%	30.2%	24.6%	10.3%	0.2%
성	남자	491	31.8	31.2	25.3	11.6	0.2
	여자	509	37.5	29.3	24.0	9.0	0.2
연령	20대	244	28.7	27.0	27.5	16.8	0.0
	30대	258	31.4	30.2	27.1	11.2	0.0
	40대	211	37.9	30.3	22.7	9.0	0.0
	50대이상	287	40.4	32.8	21.3	4.9	0.7
지역	서울	221	25.8	38.0	22.2	13.6	0.5
	부산/경남	167	37.7	25.1	25.7	11.4	0.0
	대구/경북	116	37.9	29.3	24.1	7.8	0.9
	인천/경기	241	36.5	29.5	25.3	8.7	0.0
	광주/전라	118	33.1	30.5	25.4	11.0	0.0
	대전/충청	103	40.8	29.1	23.3	6.8	0.0
학력	강원	34	41.2	14.7	32.4	11.8	0.0
	중졸이하	140	35.7	28.6	30.7	4.3	0.7
	고졸	331	35.3	32.3	23.9	8.2	0.3
직업	대재이상	529	34.0	29.3	23.4	13.2	0.0
	화이트칼라	236	30.5	33.5	21.2	14.8	0.0
	블루칼라	119	28.6	32.8	32.8	5.9	0.0
	자영업	127	33.9	34.6	22.0	8.7	0.8
	주부	299	43.1	27.8	21.7	7.0	0.3
	학생	129	27.1	20.2	36.4	16.3	0.0
소득	무직/기타	90	37.8	34.4	18.9	8.9	0.0
	100만원이하	92	29.3	30.4	30.4	9.8	0.0
	101-200만원	141	30.5	32.6	27.0	9.2	0.7
	201-300만원	223	37.2	28.3	22.9	11.7	0.0
	301-400만원	183	33.9	33.9	23.5	8.7	0.0
장기해외 체류경험	401만원이상	249	37.8	28.1	23.3	10.8	0.0
	무응답	112	33.9	29.5	25.0	10.7	0.9
	있음	80	32.5	27.5	25.0	15.0	0.0
장기해외 체류경험	없음	917	34.8	30.4	24.6	9.9	0.2
	무응답	3	66.7	33.3	0.0	0.0	0.0

2.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한 민간단체 활동 지원 필요성

- 일반국민의 대다수(95.3%)는 향후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는 행정력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의 활동에도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에 높은 공감을 나타냄.
- 반면, '불필요하다'는 부정적 견해는 4.2%(전혀 필요하지 않다 0.9% + 별로 필요하지 않다 3.3%)에 불과함.

< 민간단체 활동 지원 필요성 >



-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구성원의 사회적 위험성과 사회적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집단이 민간단체 활동 지원 강화에 대해 공감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한 인식여부와 관계없이 '정부의 민간단체 활동 지원은 강화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사회적 인식에 따른 민간단체 활동지원 필요성 >

민간단체 지원 필요성(%)		필요(A+B)	매우 필요(A)	필요하다고 봄(B)	별로 필요하지 않음	전혀 필요하지 않음
심각성 및 위험성 인식						
심각성	심 각	95.8	47.5	48.3	2.3	0.9
	비심각	93.5	38.7	54.8	5.1	0.9
인식정도	인 식	96.1	49.8	46.3	3.1	0.5
	비인식	94.0	39.0	55.1	3.6	1.6

* 무응답 제외

응답자 특성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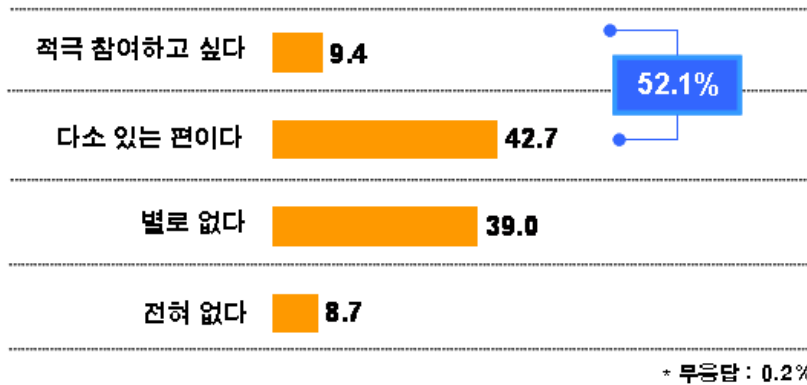
- 마약류 및 약물남용 방지를 위한 정부의 민간단체지원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자는 여성(97.1%), 40대(97.2%), 대구/경북(98.3%), 고졸(97.9%), 주부(97.3%), 소득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남성(5.7%), 20대(5.7%), 광주/전라(6.8%), 중졸이하(5.7%), 학생(7.8%)에서 ‘필요하지 않다’라는 견해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사례수	매우 필요	대체로 필요	별로 불필요	전혀 불필요	무응답	필요	불필요
전체		1,000명	45.6%	49.7%	3.3%	0.9%	0.5%	95.3%	4.2%
성	남자	491	44.4	49.1	4.5	1.2	0.8	93.5	5.7
	여자	509	46.8	50.3	2.2	0.6	0.2	97.1	2.8
연령	20대	244	40.6	53.7	5.3	0.4	0.0	94.3	5.7
	30대	258	44.2	51.2	2.3	1.2	1.2	95.3	3.5
	40대	211	51.7	45.5	1.9	0.5	0.5	97.2	2.4
	50대이상	287	46.7	48.1	3.5	1.4	0.3	94.8	4.9
지역	서울	221	47.1	48.4	3.6	0.9	0.0	95.5	4.5
	부산/경남	167	58.1	39.5	1.8	0.6	0.0	97.6	2.4
	대구/경북	116	47.4	50.9	0.0	0.9	0.9	98.3	0.9
	인천/경기	241	40.2	52.7	4.6	1.2	1.2	92.9	5.8
	광주/전라	118	38.1	54.2	5.9	0.8	0.8	92.4	6.8
	대전/충청	103	37.9	59.2	1.9	1.0	0.0	97.1	2.9
학력	강원	34	55.9	38.2	5.9	0.0	0.0	94.1	5.9
	중졸이하	140	39.3	53.6	4.3	1.4	1.4	92.9	5.7
	고졸	331	46.8	51.1	1.5	0.3	0.3	97.9	1.8
직업	대재이상	529	46.5	47.8	4.2	1.1	0.4	94.3	5.3
	화이트칼라	236	44.9	50.4	3.0	0.8	0.8	95.3	3.8
	블루칼라	119	45.4	47.9	5.0	0.8	0.8	93.3	5.9
	자영업	127	44.9	50.4	2.4	1.6	0.8	95.3	3.9
	주부	299	49.2	48.2	1.7	1.0	0.0	97.3	2.7
	학생	129	36.4	55.8	7.0	0.8	0.0	92.2	7.8
소득	무직/기타	90	50.0	45.6	3.3	0.0	1.1	95.6	3.3
	100만원이하	92	48.9	48.9	2.2	0.0	0.0	97.8	2.2
	101-200만원	141	44.7	52.5	2.1	0.0	0.7	97.2	2.1
	201-300만원	223	47.5	47.5	4.5	0.4	0.0	95.1	4.9
	301-400만원	183	48.6	47.0	3.8	0.5	0.0	95.6	4.4
	401만원이상	249	46.2	49.4	2.4	2.0	0.0	95.6	4.4
장기해외 체류경험	무응답	112	33.9	56.3	4.5	1.8	3.6	90.2	6.3
	있음	80	48.8	43.8	3.8	3.8	0.0	92.5	7.5
	없음	917	45.4	50.2	3.3	0.7	0.5	95.5	3.9
		무응답	3	33.3	66.7	0.0	0.0	100.0	0.0

3.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한 민간단체 활동 참여 의향

- 일반국민의 과반수 이상(52.1%)이 향후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 방지를 위해 민간단체의 활동에도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의견에 높은 공감을 나타냄.
- 반면, '참여할 의향이 없다'는 부정적 견해는 47.7%(전혀 없다 8.7% + 별로 없다 39.0%)에 불과함.

〈 민간단체 활동 참여 의향 〉



-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구성원의 사회적 위험성과 사회적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집단이 민간단체 활동 참여 의향에 대해 공감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한 인식여부와 관계없이 '정부의 민간단체 활동 참여 의향은 강화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사회적 인식에 따른 민간단체 활동 참여 의향 〉


민간단체 활동 참여 의향(%)		의향있음(A+B)	적극 참여(A)	다소 있음(B)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심각성 및 위험성 인식						
심각성	심 각	54.5	10.3	44.2	37.9	7.3
	비심각	43.3	6.0	37.3	42.9	13.8
인식정도	인 식	56.6	11.1	45.5	35.6	7.8
	비인식	44.9	6.8	38.2	44.4	10.1

* 무응답 제외


응답자 특성별 분석

- 마약류 및 약물남용 방지를 위한 정부의 민간단체활동 참여 의향에 대해 ‘의향있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자는 남성(52.7%), 40대(61.6%), 부산/경남(58.7%), 고졸(55.0%), 자영업(57.5%), 월 가구평균 401만원 이상(58.2%) 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여성(48.3%), 20대(54.9%), 서울(52.5%), 중졸이하(55.0%), 학생(56.6%), 월 가구평균 100만원 이하(54.3%) 소득층에서 ‘의향 없다’라는 견해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사례수	적극 참여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전혀	무응답	의향 있음	의향 없음
전 체		1,000명	9.4%	42.7%	39.0%	8.7%	0.2%	52.1%	47.7%
성	남자	491	10.8	42.0	37.7	9.4	0.2	52.7	47.0
	여자	509	8.1	43.4	40.3	8.1	0.2	51.5	48.3
연령	20대	244	4.5	40.6	45.9	9.0	0.0	45.1	54.9
	30대	258	7.0	41.9	41.5	9.7	0.0	48.8	51.2
	40대	211	11.4	50.2	31.8	6.2	0.5	61.6	37.9
	50대이상	287	14.3	39.7	36.2	9.4	0.3	54.0	45.6
지역	서울	221	8.1	39.4	46.2	6.3	0.0	47.5	52.5
	부산/경남	167	10.8	47.9	32.9	8.4	0.0	58.7	41.3
	대구/경북	116	12.1	39.7	36.2	11.2	0.9	51.7	47.4
	인천/경기	241	7.5	45.6	38.2	8.3	0.4	53.1	46.5
	광주/전라	118	8.5	39.8	43.2	8.5	0.0	48.3	51.7
	대전/충청	103	9.7	40.8	37.9	11.7	0.0	50.5	49.5
학력	강원	34	17.6	44.1	26.5	11.8	0.0	61.8	38.2
	중졸이하	140	13.6	30.7	42.1	12.9	0.7	44.3	55.0
	고졸	331	8.8	46.2	36.3	8.5	0.3	55.0	44.7
직업	대재이상	529	8.7	43.7	39.9	7.8	0.0	52.4	47.6
	화이트칼라	236	8.5	42.4	41.5	7.6	0.0	50.8	49.2
	블루칼라	119	10.9	38.7	36.1	13.4	0.8	49.6	49.6
	자영업	127	10.2	47.2	33.9	8.7	0.0	57.5	42.5
	주부	299	9.0	45.2	39.5	6.0	0.3	54.2	45.5
	학생	129	2.3	41.1	45.7	10.9	0.0	43.4	56.6
소득	무직/기타	90	20.0	36.7	32.2	11.1	0.0	56.7	43.3
	100만원이하	92	14.1	31.5	40.2	14.1	0.0	45.7	54.3
	101-200만원	141	14.9	41.8	34.8	7.8	0.7	56.7	42.6
	201-300만원	223	8.5	48.4	36.3	6.7	0.0	57.0	43.0
	301-400만원	183	7.1	41.0	42.6	9.3	0.0	48.1	51.9
	401만원이상	249	9.2	49.0	35.7	6.0	0.0	58.2	41.8
장기해외 체류경험	무응답	112	4.5	30.4	50.0	14.3	0.9	34.8	64.3
	있음	80	12.5	41.3	41.3	5.0	0.0	53.8	46.3
	없음	917	9.2	42.9	38.8	8.9	0.2	52.0	47.8
		3	0.0	33.3	33.3	33.3	0.0	33.3	66.7



부록 1. 기초통계표





부록 2. 조사설문지



마약류 심각성에 관한 국민 인식도 조사

ID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월드리서치】**입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의뢰를 받아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식과 향후 마약류 확산을 막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자료는 현 마약류 상황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마약류퇴치 사업 방향을 정하는데 소중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조사과정에서 알려진 모든 사항은 통계법 33조에 의거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고 오직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0월 월드리서치 연구팀

☐ 마약류 관련 문의시 안내 전화번호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문의처 : 02-2677-2245

SQ1. 응답자 현 거주지역 (※ 면접원 기재)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SQ2. 지역크기(※ 면접원 기재) ① 광역시 ② 중소도시 ③ 군/읍/면

SQ3. 선생님의 '연세'는 현재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_____세]

[▶ 10월 1일 기준 만19세 미만은 면접 중단]

SQ4. 성별 (※ 면접원 기재) ① 남자 ② 여자

본 조사에서 '마약류 및 남용약물'이라는 말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와 같은 '마약류', 본드나 부탄가스와 같은 '환각흡입물질', 잘못 사용되는 '처방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①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인식

문1. 그럼, 우리 사회의 일반시민들은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② 대체로 인식하고 있는 편이다
 ③ 별로 인식하지 못하는 편이다 ④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⑨ (읽지말것) 잘모름

문2. 귀하께서는 개인적으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마약류 및 약물남용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느끼십니까?

- ① 매우 심각하다 ② 다소 심각하다
 ③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④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⑨ (읽지말것) 잘모름

문3. 귀하께서는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따른 피해나 위험을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셨습니까?

- ① TV나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해
- ②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
- ③ 학교 등에서의 교육을 통해
- ④ 민간단체의 예방교육이나 홍보활동을 통해
- ⑤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 ⑥ 주변사람을 통해
- ⑦ 인터넷을 통해
- ⑧ 영화를 통해
- ⑨ 기타(구체적으로 기록) _____

② 마약류 및 남용약물 사용경험

문4. 귀하 또는 귀하의 주변에서 병원 또는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을 제외하고, 제조업체와 제품명이 확인되지 않은 _____(와)과 같은 약물을 사용해 보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1) '피로 회복제'	1	2
2) '살 빼는 약'	1	2
3) 술집 등 유흥업소에서 유통되는 '술 깨는 약'	1	2
4) '머리가 맑아지는 약' 혹은 '근육을 키우는 약'	1	2

문5. 조기유학생이 연2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조기유학생 대부분은 마약류 문제가 심각한 국가로 가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마약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기유학생들이 마약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조기유학생 및 학부모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의 의무화
- ② 학교에서 약물예방교육을 정규교과 과정으로 채택
- ③ 마약류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한 출입국 통제
- ④ 조기유학생 및 학부모의 자율에 맡김
- ⑤ 기타(구체적으로 기록) _____

문6. 만약 치료재활을 성공적으로 마친 마약류 중독 회복자가 같은 지역에서 생활한다면, 귀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① 이웃들과 함께 관심을 갖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
- ②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경각심을 갖고 어울리지는 않겠다
- ③ 이웃들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것을 요구하겠다
- ④ 관심을 갖지 않겠다
- ⑤ 기타(구체적으로 기록) _____

③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활동 인식

-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로 마약류 예방 및 중독자 사회복귀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7. 귀하께서는 마약퇴치운동본부의 활동과 관련하여, _____을 접해 본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 마약류나 남용약물에 관한 예방교육이나 캠페인	1	2
2) 마약류나 남용약물 예방을 위한 대중매체 광고	1	2
3) 마약류나 남용약물 예방을 위한 상담	1	2
4) 마약퇴치운동본부 홈페이지 방문	1	2
5) 중독자 재활을 위한 송천재활센터 및 재활교육	1	2

문8. 귀하께서는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마약류 예방을 위한 홍보나 교육 사업
- ②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사업
- ③ 마약류 관련 연구사업
- ④ 마약류 중독자 치료 사업
- ⑤ 기타(구체적으로 기록) _____

④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 방지 방안

문9. 향후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초.중.고 교과목 중 마약류 예방 교육시간 배당
- ② TV 등 대중매체를 통한 마약퇴치 홍보 프로그램 방영
- ③ 마약중독자 치료 및 재활 등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강화
- ④ 마약류 사용자 및 유통자, 제조자에 대한 처벌 강화
- ⑤ 기타(구체적으로 기록) _____

문10. 귀하께서는 향후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행정력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의 활동에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 ② 필요하다고 본다
- ③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문11. 귀하께서는 향후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을 막기 위한 민간단체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생긴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적극 참여하고 싶다
- ② 다소 있는 편이다
- ③ 별로 없다
- ④ 전혀 없다

⑥ 통계처리 문항

DQ1. 선생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대재 ④ 대졸 이상

DQ2. 선생님께서는 현재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 ① 전문/자유직 ② 사무/기술직 ③ 경영/관리직
 ④ 판매/서비스직 ⑤ 일용/작업직 ⑥ 생산/운수직
 ⑦ (전업)주부 ⑧ 대학(원)생 ⑨ 자영업
 ⑩ 무직 ⑪ 농림축수산업 ⑫ 기타_____

DQ3. 선생님을 포함한 선생님 닥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얼마나 되십니까? 정기적인 수입과 함께 상여금이나 부수입 등은 12개월로 나누어 합산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① 70만원 이하 ② 71-100만원 ③ 101-150만원
 ④ 151-200만원 ⑤ 201-250만원 ⑥ 251-300만원
 ⑦ 301-400만원 ⑧ 401-500만원 ⑨ 501만원 이상

DQ4. 선생님께서는 해외유학이나 장기출장, 해외지사파견 등을 비롯해서 6개월이상 해외에서 체류한 경험이 있으신지요? ① 있다 ② 없다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